

# SIMPAC STORY

2012 AUTUMN VOL. 20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반영이다.”



## The Future

### SPECIAL FEATURE - FUTURE OF SIMPAC

다 함께 Talk Talk - (주)SIMPAC홀딩스와 (주)SIMPAC이엔지 사람들

Special Column - 목표달성법 & 추천도서

찰칵! 우리 팀의 하루

(주)SIMPAC메탈로이 포항 본사 합금철영업팀

### WITH US

조직활성화 위한 (주)SIMPAC메탈로이 전 직원의 계열사 방문 현장



**CONTENTS**

**SPECIAL FEATURE – Future of SIMPAC**

- 05 다 함께 Talk Talk -  
주SIMPAC홀딩스와 주SIMPAC이엔지 사람들
- 10 Special Column - 목표달성법 & 추천도서

**찰칵! 우리 팀의 하루**

- 16 주SIMPAC메탈로이 포항 본사 합금철영업팀

**WITH US**

- 20 조직활성화 위한 주SIMPAC메탈로이  
전 직원의 계열사 방문 현장

**TRIP ON**

- 22 SIMPAC인의 가을 나들이 - 충청북도 제천

**WHAT'S THE BEST?**

- 26 주SIMPAC메탈 - Ferro-Alloy

**다락방**

- 28 SIMPAC인의 영화 & 여행

**SIMPAC NEWS**

- 30 SIMPAC소식

**33 다른그림찾기**

# The Future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반영이다.”

“지금 이 순간, 2050년의 세계가 어떠한 모습일지 결정되며,  
2100년의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준비되고 있다.”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먼 훗날의 모습을 상상하며 미래란 예측 불가능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들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이를 100%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매분 매초 나뉘어진 것처럼 보이고 모든 사건은  
우연의 연속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오늘은 어제가 있었기에  
존재하고 내일은 오늘이 있기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의 SIMPAC을 만든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찬란한 내일을 위한 여러분의 오늘, 어떠한 모습인지요?



# SPECIAL FEATURE

Future of SIMPAC - 내일을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나아가라

01. 다 함께 Talk Talk - (주)SIMPAC홀딩스와 (주)SIMPAC이엔지 사람들  
02. Special Column - 목표달성법 & 추천도서



(주)SIMPAC홀딩스와 (주)SIMPAC이엔지 사람들

‘SIMPAC’의 이름으로,  
더 큰 날개를 펼쳐  
날아 오르다

참석자

(주)SIMPAC홀딩스 전략기획실 한성민 차장, 박성철 과장, 이승훈 사원  
(주)SIMPAC프로퍼티스 자산관리팀 이성혜 사원  
(주)SIMPAC이엔지 생산팀 정제린 대리, 경영지원팀 권성안 사원



완연한 가을 날씨에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지는 10월.  
 넓게 펼쳐진 인천광역시 검단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주)SIMPAC이엔지에 도착하니  
 가을이 더 깊어진 듯 바람이 세다. 10월의 둘째 주 오후, (주)SIMPAC이엔지 사옥 2층 회의실에서  
 (주)SIMPAC홀딩스와 (주)SIMPAC 이엔지 직원 중 6명이 만나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올해 말 두 회사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Q. 먼저 서로가 보는  
 (주)SIMPAC홀딩스의 장점,  
 그리고 (주)SIMPAC이엔지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 한성민 차장** (주)SIMPAC이엔지는 SIMPAC그룹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체 영업 이익률에 견주어 봤을 때 우수할 뿐 아니라 그룹 내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 권성안 사원** (주)SIMPAC홀딩스의 장점 중 하나는 7명의 소수정에 인원이 한 팀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만큼 단합이 잘 되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제린 대리** (주)SIMPAC홀딩스는 재무나 회계 쪽의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인프라에 집중되어 있는 (주)SIMPAC이엔지 입장에서 도움 얻을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Q. (주)SIMPAC홀딩스와  
 (주)SIMPAC이엔지는 각각  
 서울 여의도와 인천 검단에  
 위치해 있어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두 회사의 합병이  
 진행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 한성민 차장** 불철주야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주)SIMPAC이엔지 직원들을 위해 지주회사로서 (주)SIMPAC홀딩스가 어려운 점은 없는 지 파악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두 회사가 전화나 메일을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현장에 자주 방문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등,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 박성철 과장** 제조 및 생산을 총괄하는 (주)SIMPAC이엔지와 달리 (주)SIMPAC홀딩스는 지주회사라는 특성 때문에 현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특성과 강점들을 살려서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 정제린 대리** 말씀하신 것처럼 (주)SIMPAC홀딩스와 (주)SIMPAC이엔지가 협력해 나간다면 생산 현장의 역량도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저도 (주)SIMPAC이엔지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원활한 소통과 팀워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성민 차장**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우선은 인간적인 관계와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업무상 직접 만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자의 업무로 바쁘다는 핑계 아닌 핑계도 있었고요, 업무에 대해 고민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나 그러질 못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서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화를 자주 했으면 합니다.
- 이성혜 사원** 한 차장님 말씀처럼 현장이나 사무실이나, 함께 일하는 분들과 먼저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서로가 원활하게 소통하는 가운데 업무를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Q. 앞으로  
SIMPAC그룹이  
성장해 나가는 데 각자의  
다짐이나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이승훈 사원** 꾸준한 성과를 내오던 기존 구조는 그대로 가지고 가되 이번 계기를 통해 두 회사가 더욱 안정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 없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직 차원에서 서로 부단히 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성안 사원** (주)SIMPAC이엔지는 소수의 인원이다 보니 한 사람이 맡은 업무가 다양합니다. 인사, 구매, 총무, 회계 등 자기가 맡은 업무를 알아서 잘 처리하는 편입니다. 다만 업무량이 많아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스스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가정이 편해야 컨디션도 좋고 일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직원들 모두 가정이 편안하고 화목하길 바랍니다.

**한성민 차장** 각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내실 있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고 새로운 사업을 꾸준히 개발하면서 회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제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성철 과장** 우리 모두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계속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부터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혜 사원** 저는 아직 신입사원이라 뭐든지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산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끝없이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제린 대리** 저는 (주)SIMPAC이엔지의 창립부터 함께 한 가장 오래된 멤버로서 제 분야에서 만큼은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주)SIMPAC이엔지가 품질 일등,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SIMPAC홀딩스는 (주)SIMPAC이엔지에게, 또 (주)SIMPAC이엔지는 (주)SIMPAC홀딩스에게 서로가 든든한 존재로서 걸음을 맞춰가고 있는 지금, 그들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가 펼쳐져 있다. 혼자보다 둘이 좋고, 둘 보다는 여럿이 나으니, 함께 하는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며 눈부신 성장을 이뤄갈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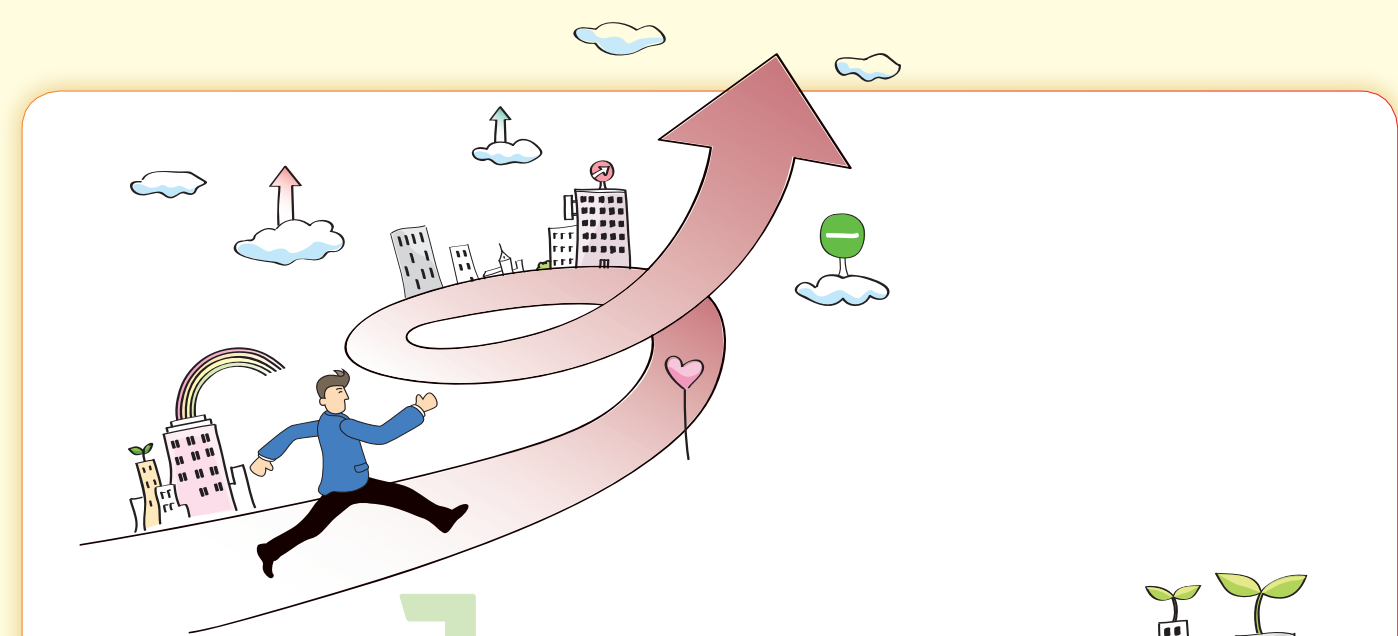




### SIMPAC인의 목표달성을 위한 생활 속 실천법

##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새해가 시작될 때 직장인들의 계획 1순위는 ‘자기계발’이라고 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는 몇 %나 이루셨나요? 아무리 거창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자기계발의 묘미는 무엇보다도 발전된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닐까요? 자, 다시금 자신의 목표를 점검해 봅시다.



# 1

###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라

지금도 나는 수첩 안에 재무 목표와 여러 꿈들을 20가지 정도 넣고 다닌다. 명함 크기의 종이 한쪽에는 꿈의 종류를 적었고 다른 한 쪽에는 그 목표들을 이미지화한 그림을 넣었다. 내가 상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내 꿈은 언젠가 어느 방식으로든 꼭 이루어진다. (김승호, <김밥파는 CEO> 중에서)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어를 잘하고 싶나요? 체중을 딱 5kg만 줄이고 싶다고요?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분명한 기한이 있는 꿈입니다. 올해 안에 다이어트를 하고야 말겠다는 단기적인 목표부터 5년 후에는 중국어를 능숙하게 하겠다는 중기적 목표, 10년 후에는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면, 반드시 종이에 적는 게 좋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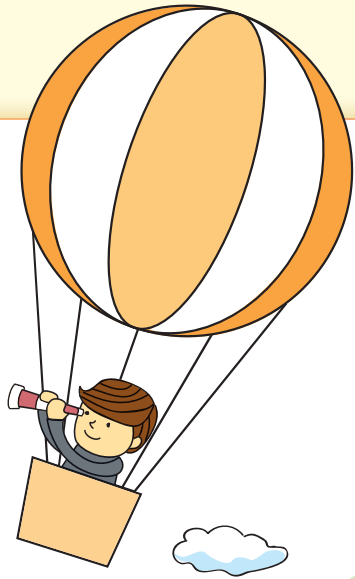
# 2

### 목표를 달성해야 할 이유를 찾아라

세상에 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람들은 나를 산소탱크라고 부르지만 고백하건대 나 역시 뛰는 것을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축구는 많이 뛰어야 잘할 수 있는 경기다. 축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뛰어야 한다. 싫어도 어쩔 수 없다. 많이 뛰는 선수는 그만큼 인정받을 것이고, 최고가 되고 싶다면 가장 많이 뛰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 (박지성, <멈추지 않는 도전> 중에서)

목표를 이루고 싶은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니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어?’라고 얼버무려 생각하지 마세요. 목표를 종이에 적었다면, 그 옆에 목





표를 꼭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적으세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고 싶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 오르고 싶다, 이렇게 자신만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 3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짜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세 가지 종류의 신문을 읽고 출근한다. 모자라는 경영지식과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매일 5시간 이상 투자했다. 매일 밤 3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고 2시간씩 경영서를 독파했다. 어느새 나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김민철, <나는 나를 넘어섰다> 중에서)

목표는 마감시한이 있는 꿈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안에 중국어를 능숙하게 하고 싶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학원에 등록할지, 독학을 할지, 스터디 그룹에 들어갈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할지 계획합니다.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노하우를 배워보는 것도 좋겠지요. 공부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 4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생각을 왜 직장 그만두고 하니? 그 현장에서 해야지. 왜 책을 꼭 바닷가에서 읽어? 지하철에서 줄을 쫓아가면서 읽어야 지식이 되는 거야. 1년 동안 책 한 권도 안 읽던 애가 가방에 20권씩 넣어가지고 여름휴가 떠나잖아? 개는 거기서도 책 절대 못 읽어. 생각은 언제하나 고? 뭐다 멈춰서 하는 게 아냐. 뛰면서 틈틈이 하는 거지. (김미경, <언니의 독설> 중에서)

힘들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계획인데, 하루쯤 게으름 부리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자기계발은 자신과 별이는 장기전입니다. 오늘 포기하더라도 내일 다시 도전하세요. 꾸준히 시간을 들인 만큼 자신만의 경쟁력이 쌓입니다.



“  
오늘 포기하더라도 내일 다시 도전하세요. 꾸준히 시간을 들인 만큼 자신만의 경쟁력이 쌓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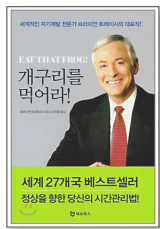
### SIMPAC인을 위한 연령대별 추천도서

# “당신의 내일을 위해, 이 책을 권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이번 달에는 어떤 책을 읽을 계획인가요?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으로 만들어진다.” 독일의 문호 마틴 발저의 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심팩인 여러분의 자기계발을 도와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새롭게 거듭날 당신을 응원합니다.



## 20대, 쏟살같이 흐르는 시간을 잡아라!

“이번 주까지 써내야 할 기획안을 미처 마무리하지도 못 했는데, 팀장님이 회의 중에 새로운 업무를 또 주셨어요. 미처 마무리하지도 못한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자꾸 급한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밀린 일을 처리할 시간이 없네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 〈개구리를 먹어라〉 by 브라이언 트레이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살아있는 개구리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라. 당신은 커다랗고 미끌거리는 개구리를 무조건 먹어야 한다. 두 마리의 개구리를 먹을 수밖에 없다면 가장 싫은 놈부터 먼저 먹어라. 어차피 먹어야 한다면 공연히 앉아서 오래 쳐다보지 말라.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해야 할 일을 개구리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해낼 시간은 없지만, 개구리 한 마리를 먹을 시간은 충분해요. 언제든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은 충분하다는 뜻이죠.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을 먼저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면 능률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일을 잘하고 성공하는 이유

는 그들이 특정한 일을 남다르게 처리하고, 일을 적절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을 훨씬, 훨씬 더 잘 사용합니다. 이 책을 읽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분명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퇴근 시간을 앞당기고 싶은 당신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 30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네트워크에 주목하라!

“일을 하다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일의 효율이나 일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좋은 인간 관계를 통해 멋진 리더로 성장하고 싶어요.”

### 〈카네기 인간관계론〉 by 데일 카네기

비판이란 쓸데 없는 짓이다.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이 자신을 정당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고 결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하고, 상대방이 당신의 말에 ‘네’라고 대답하게 하라.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경청하라.



중간관리자로 도약할 시기에 있는 30대의 직원들은 일하는 방법과 시간관리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똑같은 업무가 주어졌을 때, 인간관계에 따라 결과의 차이를 낼 수 있거든요. 이 책은 데일 카네기의 명저 중의 한 권입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지요. 인간관계를 잘 맺는 6가지 방법,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리더가 되는 9가지 방법 등이 있어요. 데일 카네기의 설명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아주 쉽게 따라 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책이 불후의 명저이자, 스테디셀러인 이유지요. 아마 ‘진작에 읽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 40대,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리더가 되려면 업무능력과 인간관계는 기본이지요.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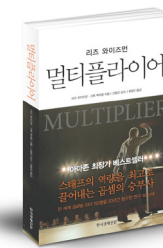
### 〈손정의, 미래를 말하다〉

by 소프트뱅크 신30년 비전 제작위원회

5개년 계획을 손에 쥐고 1년 일찍 달성했네, 1년 늦게 달성했네 하는 차원의 논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정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30년이라는 시간은 길고 긴 대장정의 한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초의 30년은 지나갔으므로 앞으로의 30년은 300년에서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손정의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단 두 명의 직원에서 시작한 소프트뱅크로 일본의 제일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3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으면서 3천 권의 독서를 했다는 이야기로 유명하지요.

이 책을 읽으면 3천 권 독서의 내공을 쌓은 사람이 앞으로 300년을 내다보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과, 그의 통찰력에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책은 조직의 리더가 조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때, 어떻게 하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도움을 줍니다. 시대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짧지만 강렬한 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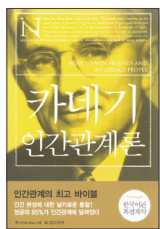
## 50대 이상, 세상을 끌어안는 리더가 되려면!

“조직의 리더로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고무시켜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게 할까’입니다. 리더의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조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행동하도록 돕는 리더가 가장 멋지지 않을까요?”

### 〈멀티플라이어〉 by 리즈 와이먼

세상에는 사람을 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만드는 리더들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지성과 능력을 부활시키고 끌어낸다. 우리는 그들을 멀티플라이어라 부른다. 멀티플라이어는 집단 지성 바이러스에 열광하는 조직을 만든다. 그들 주위에는 지성과 혁신의 파도가 밀려온다.

이 책은 조직의 지적능력과 문화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쏟는 사람을 멀티플라이어로, 다른 사람을 압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사람을 디미니셔로 규정합니다. 멀티플라이어는 팀과 조직의 역량을 최고로 이끌어내고 조직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팀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리더를 뜻하지요. 리즈와이먼과 그렉 맥커운은 글로벌 기업 35개사 150명 이상의 임원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 멀티플라이어 효과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멀티플라이어는 함께 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2배로 끌어올려 자원의 추가 투입 없이도 생산성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해요. 이 책은 조직의 지능과 역량을 촉발시키면서 누구나 멀티플라이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순한 리더십의 활용이 아닌 그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 에너지 넘치는 막강 트리오!

## (주)SIMPAC메탈로이 포항 본사 합금철영업팀

(주)SIMPAC메탈로이 본사가 위치한 포항에서 든든한 합금철영업팀 사람들을 만났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주요 고로사, 제강사의 현지 공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판매 현장의 최일선을 지키는 포항 본사의 합금철영업팀을 소개한다.



허명일 과장



김대환 사원



김희정 사원

### 포항 본사 합금철영업팀의 막강 트리오

올해로 8년 차인 허명일 과장은 포항 본사 합금철영업팀의 업무를 총괄한다. 계열사별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합금철, 단광입자공 용역 등의 원활한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고객사 관리 업무를 맡는다.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정장배 팀장을 대신해 큰 형님, 큰 오빠처럼 팀을 보듬는다. 남다른 유머감각으로 팀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면서도 업무에 있어서 더없이 꼼꼼하다는 것이 그의 장점이다.

2년 차인 김대환 사원은 고객사와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매일 아침 거래처에서 걸려오는 주문전화를 받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며 계열사별 출하, ERP집계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등글등글한 성격에 뛰어난 친화력으로 다른 팀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다. 늘 씩씩하고 활기가 넘쳐서 그를 보기만 해도 힘이 날 정도다.

3년 차인 김희정 사원은 모든 제품의 출고에서부터 계산서 관리, 채권 관리 등 팀의 살림을 책임진다. 월 매출 마감할 때면 늦은 시간까지 할 일을 마무리한 후에 퇴근하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주말에도 말없이 나와서 일을 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하다.

### 우리 팀은 포항과 서울에서 두 집 살림 중

(주)SIMPAC메탈로이의 합금철영업팀은 서울사무소에 5명, 포항 본사에 3명이 근무한다. 서울사무소 합금철영업팀은 주요 계약 및 수출입 업무를 맡고 있고, 포항 본사 합금철영업팀은 (주)SIMPAC메탈로이와 (주)SIMPAC메탈의 원활한 판매활동을 지원한다. 비록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는 않지만 매일 전화통화를 나누고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끈끈한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멀리 떨어진 만큼 서로에 대한 배려심이 남다르다는 게 자랑할 만한 점이라고.

“업무적인 특성상 서울과 포항으로 나뉘어져 근무하지만 우리 팀 공통의 목표는 ‘최대 판매와 최대 이윤’입니다. 같은 목표를 공유하면서 한 배를 탄 우리들은 팀장부터 사원까지 한 식구라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지요.” 허명일 과장은 팀 위크가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며 이렇게 덧붙었다. “정장배 팀장님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예요.”

“과장님이 농담도 잘하시고, 직원들을 잘 챙겨주십니다. 업무적으로 무척 꼼꼼하셔서 야단도 많이 맞곤 해요. 하지만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시는 훌륭한 성격이십니다.” 김대환 사원이 허명일 과장을 추켜세운





Mini Interview

고객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는 나만의 노하우는?



허명일  
과장

고객이 원하는 것을 빨리 알아채고, 그대로 만족시켜드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업무상 만나는 관계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이 중요하고요. 고객의 모친이 병환으로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제가 술 한 잔 산다고 위료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어머니 병환에는 이런 게 좋더라, 사소한 부분을 챙겨주면서 마음을 쓰면 상대방이 더욱 감동합니다. 물론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겠지만 가능한 사적인 부분까지도 챙겨주려고 노력합니다.



김대환  
사원

저는 업무상 고객을 많이 만나는 편인데, 대체로 저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저를 동생처럼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죠. 가끔씩 고객사에 찾아갈 때는 오후 3시나 4시쯤 출출한 시간에 음료수와 빵을 사 들고 갑니다. 업무적인 이야기와 더불어 이런 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친분을 쌓지요.



김희정  
사원

저는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보니 외근을 하거나 출장 가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고객 응대를 주로 전화상으로 하게 됩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통화만 하기 때문에 목소리에 더욱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친절하고 상냥한 말투만으로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으니까요.



다. "과장님께서서는 잘못을 지적하실 때도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부족한 부분만을 꼭 짚어주셔서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되죠." 김희정 사원도 맞장구를 친다. 고객사와의 술자리가 한 달 평균 7~8번 있기 때문에 특별히 회식을 하거나, 정기적인 회의를 갖지 않는다. 그보다는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며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들의 팀 워크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허명일 과장의 말에 따르면 잔소리든, 농담이든, 자질구레한 이야기든 모든 대화가 팀 워크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신뢰가 가득한 이유를 알 것 같다.

똥똥 뭉쳐 내년의 목표를 마음에 새긴다

합금철영업팀 사람들에게 2012년은 아쉬움이 남는 한 해다. 종합합금철 메이커로서 '다품종 대량생산'의 기치 아래 '최대 매출과 최대 이익'을 잡으려고 한 목표가 유럽발 경제위기와 세계 경제 침체, 원가 부담 등으로 그 달성에 어려움이 많

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포항과 당진의 생산량이 100% 판매량으로 이어지도록 팀원 모두가 철저히 준비해서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허명일 과장이 힘있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도 올해 부족했던 영어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해외영업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의 바이어들이 공장에 방문할 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김대환 사원이 자기계발의 의지를 보인다. 김희정 사원도 업무를 더 잘해내기 위한 욕심을 낸다. "저는 올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몇 개 따보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내년에는 꼭 공부해 보려고요."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내년의 목표를 마음에 새기는 모습들이 무척이나 든든하다. 세 명의 팀원이 똥똥 뭉쳐 서른 명 이상의 에너지를 내뿜는 듯한 포항 본사 합금철영업팀의 앞날이 기대된다.



Photo by SIMPAC

(주)SIMPAC메탈로이 포항 본사 합금철영업팀 김대환 사원의 하루!

1



① 댕댕댕~ 즐거운 차임벨 소리와 함께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위해 전 직원이 사무동 앞에 모여 국민체조로 힘찬 하루 위한 스트레칭을 하고, ② 체조가 끝난 뒤 고객사로부터 들어온 발주와 금일 출고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업무를 시작합니다.

2



③ 오늘은 우리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날이라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차량들이 잘 도착하는지, 제품의 상태는 괜찮은지, 상차 설비는 잘 작동하는지, 정량이 상차되는 지 등 확인 할 것도 많은 하루입니다.

3



④ 오후 출고를 위해 제품의 포장 상태와 입도(크기)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⑤ 제품 창고 등을 둘러보며, 프로그램 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 파악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5



4







# 거리가 멀어도 성장이란 목표만은 하나!

### 조직활성화 위한 (주)SIMPAC메탈로이 전 직원의 계열사 방문 현장

2012년 하반기를 맞아 (주)SIMPAC메탈로이 전 직원이 계열사 방문에 나섰다. 직원 화합을 위한 조직활성화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이번 방문은 SIMPAC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첨단 네트워크 기술로 세상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고는 하나 두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서로 얼굴 마주보며 이야기 나누는 것만 한 것은 없으리라. (주)SIMPAC메탈로이 직원 130여 명은 10월 7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인원을 나눠 각각 당진, 검단, 부평, 여의도에 위치한 계열사들을 직접 방문하고 협력관계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에서도 지난 10월 18일 부평에 방문한 3차 인원의 견학현장을 함께 들여다 보자.

1 오전 10시 30분 부평에 위치한 (주)SIMPAC 사옥에 도착하였습니다. 멀리 포항에서 온 SIMPAC인들을 환영하듯 하늘이 무척 맑습니다.



2 회의실에 착석한 뒤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도 듣고 체력단련실 등 사내 시설도 둘러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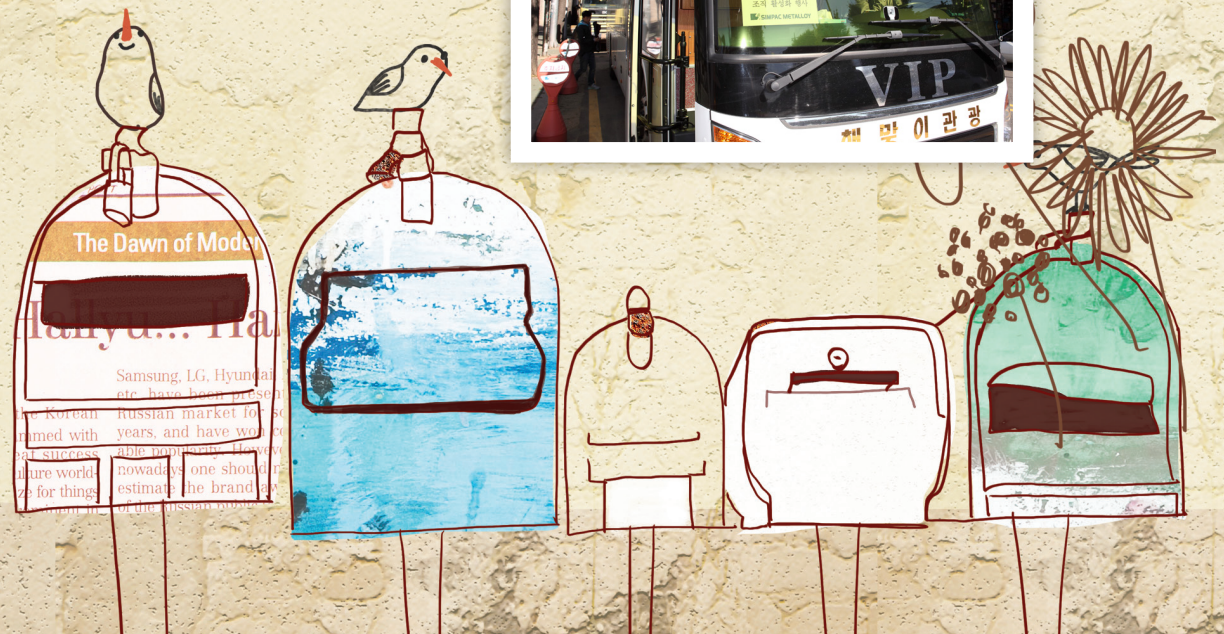
3 공장에 들어가기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공정과정과 시설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듣습니다.



4 본격적으로 공장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질문도 많고 설명해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5 짧지만 알찬 시간을 보내고 이젠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을 기약하며 버스에 오릅니다.





# 청풍명월의 고장에서 '신비를 품은 운치'와 마주하다

## 충청북도 제천

글·사진 | 허주희(여행작가)

깊어가는 가을, 산하(山下)는 온통 붉은 색채로 물들어 있다. 소슬바람 맞으며 산책로를 걸거나 갈색 벤치에 앉아 사색에 빠지는 계절. 이 가을을 가장 '가을답게' 느끼고 싶다. 수려한 산줄기와 봉우리가 쪽빛 청풍 호반을 감싸 흐르는 곳. 고즈넉한 가을 정취가 한 자락 여운으로 가슴에 아로 새겨진다.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 제천에서 느끼는 가을은 '신비로움을 품은 운치', 그 자체다.





가을은 유난히 '바람'을 타게 한다. 떠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여행의 바람'. 산과 호수가 두 팔 벌려 여행자를 환영하듯, 충북 제천에는 여행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깊은 울림이 있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일컫는 '청풍명월(淸風明月)'. 맑은 바람은 마음속의 찌든 때까지 씻어주고, 밝은 달은 어둠을 밝히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해 준다. 파란 호수에 투영된 가을빛이 마음에도 잔잔하게 투영된다. 어느 새 잡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맑은 기운이 감도니 온 몸이 청아해진다. 가장 '가을다운 가을'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제천. 여기에 한방을 원료로 한 특별식으로 건강을 다지며 심신을 재충전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노래하는 곳' 청풍호**

하늘과 호수가 맞닿은 이곳에 있으면 마음까지 파랗게 물드는 기분이다. 깊은 산과 계곡에 둘러싸인 친해의 지형에 자리 잡은 청풍호는 제천의 대표적인 명소다. 특히 가을에 오면 탁 트인 청풍호를 배경으로 붉은 색채가 만들어내는 깊고 고요한 정취에 빠진다.

청풍호는 충주 다목적댐 건설로 생성된 호수로, 뱃길 130리 중 볼거리가 가장 많고 풍경이 뛰어난 '내륙의 바다'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청풍호 주변에는 청풍문화재단지를 중심으로 봉황이호수 위를 나는 형상의 비봉산과 기암괴석이 즐비한 금수산, 그리고 마의태자의 역사가 깃든 월악산이 자리한다. 청풍호 주변을 도는 유람선은 빼어난 풍경을 두루 감상하려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가을날의 낭만과 운치를 만끽하고 싶다면 청풍호 유람선을 타 보자.

**고색창연한 '청풍문화재단지'와 '의림지'에서 고즈넉한 정취 만끽**


청풍면 망월산 기슭에 자리한 청풍문화재단지에 오르면 청풍호가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대자연이 전통을 온 몸에 품으니, 고풍스러움이 극에 달한다. 청풍문화재단지에 오르면 주변의 빼어난 자연 경관과 함께 옛 문화재를 접할 수 있다. 이곳에서 마주하는 목조와 석물, 나무와 이끼 낀 돌부리에서 역사와 자연의 깊은 감동을 느낄 것이다.



발길을 돌려 제천에서 유명한 '의림지'로 향한다. 제방을 따라 늘어 선 소나무와 뿔나무들이 여행자를 반기는 듯 하다. 제천 의림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저수지로 주변 마을의 부족한 농업용수를 해결하던 생명의 젖줄이었다. 지금은 유원지로 명성을 얻고 있다. 이곳은 순조 7년에 세워진 영호정과 1984년에 건립된 '경호루' 그리고 수백 년을 자란 소나무와 수양버들이 가을의 운치를 더해 준다. 이밖에 제천에 오면 해발 531m 비봉산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도 즐길 수 있다. 정상까지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활공장이 나오는데, 발 아래로 펼쳐지는 청풍호 풍광이 가슴시리도록 아름답다.

**제천에서만 맛보는 '약채락 비빔밥'으로 입맛 살리고 원기 회복**

제천은 오래전부터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산간지방에서 채취해 생산되는 우수한 한약재의 집적지로 발전해 왔다. 매년 가을 제천 한방엑스포공원에서는 한방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체험하는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가 열린다. '건강의 고장'답게 제천에서는 한방과 약초를 원료로 한 다양한 먹거리가 여행객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이중에 약채락 비빔밥은 제천황기와 오가피, 뽕잎을 첨가한 건강 비빔밥 브랜드로, 제천을 대표하는 한방음식이다. 이밖에 제천 곳곳에는 황기 삼계탕, 황기 백숙, 약초 순대, 한방 수육, 황기 돼지갈비 등 한방과 약초를 재료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건강 향토 음식으로 원기도 충전하고 싶거든, 주저 말고 충북 제천으로 떠나자. 



**HOW TO GO**

**제천 찾아가는 길**

**승용차**

- 서울 : 경부고속도로 → 신갈 → 영동고속도로 → 남원주 (만중J.C) → 중앙고속도로 → 제천.C → 제천
- 서울 : 중부내륙고속도로 → 감곡.C → 백운 → 제천

**버스**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제천행 고속버스 수시 운행 / 약 2시간 소요

**WHERE TO GO**

**한방명의촌과 명암산채건강마을**

제천은 '건강 도시'를 표방하면서 도시인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을 다지고 요양하면서 하룻밤 편히 묵을 수 있는 한방명의촌과 명암산채건강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한방명의촌에서 간단한 건강진단과 진료를 받고 옆에 위치한 명암산채건강마을의 황토펀션에 묵으면서 넉넉한 하루를 보내보자. 이곳에서 청정 보양음식을 먹으며 원기도 회복한다면, '건강과 휴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다.

**문의**

제천시청 문화관광과 : 043-641-5140  
http://www.okjc.net



(주)SIMPAC메탈  
 우리 제품을 소개합니다.  
**Ferro-Alloy**

(주)SIMPAC메탈은 가벼우면서도 높은 강도를 가진 철강제품 (초경량 자동차용 강판 및 선박 등) 생산에 필수적인 부원료, 중·저탄소페로망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고객사인 POSCO,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기타 제강사 등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며 '고부가가치 합금철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생산 제품 ◎

(주)SIMPAC메탈은 연간 10만톤 규모의 HC/MC/LC FeMn, SiMn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설비로는 전기로 2기(25MVA X 2기), 정련로 2기(20톤/ch X 2기)과 에어돔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MC/LC FeMn**

- 고탄소에 비해 탄소함량이 적은 가장 고품질의 망간합금철
- 제강시 탈산, 탈류와 망간 성분을 첨가해 강의 특성을 향상
- 자동차용 고급 판재, 후판용 등 고품질 철강제품 생산시 사용



**HC FeMn**

- 페로망간 중 탄소함량이 많은 망간합금철
- 가장 보편화된 합금철
- 일반 판재류 제조시 성질개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금철



**SiMn**

- 산소·황 제거와 실리콘 및 망간성분 첨가를 위해 사용
- 전기로 제강에서 형강·철근 등 일반 저급강 생산에 주로 사용

◎ 생산 설비 ◎

(주)SIMPAC메탈은 친환경 생산 설비를 갖춰 자연까지 생각하는 공정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Environment-Friendly Production Equipments | 친환경 생산설비

Dust Collector   집진시설	Raw Material Storage Air Dome   원료적재 에어돔	Water Storage Facility   저수시설
5,000CMM x 2 units (Electric Furnace No.1 & No.2)   5,000CMM 2기 (전기로1,2호기)	65W*78L*24H - First to adopt in the industry: Prevents dust scattering   65W*78L*24H - 동종업계 최초 적용: 비산먼지 발생 예방	2500 Tons Water Storage Facility - Prevents water pollutant emission in the event of rain; Recycles water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2500톤 담수능력 - 우천시 초기우수에 대한 오염 물질 유출예방 및 비상시 용수 재활용
8,000CMM X 1 unit (Refinery Furnace, Casting Machine, Building Roof)   8000CMM 1기 (정련로, 주선기, 건옥)		
800CMM: Raw Material Mixing Room   800CMM : 슬래그파쇄		
600CMM: Product Crushing & Packaging   600CMM : 제품파쇄		
1,200CMM: Slag Crushing   1,200CMM : 원료배합실		

(주)SIMPAC메탈은 최상의 생산설비로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ajor Facilities & Production Capacity | 주요설비 구성 및 생산량

Facilities	Annual Production Capacity	
	Items	Q'ty(MT)
Electric Furnace	25 MVA	2 units
Refinery Furnace	20Tons/ch	2 units
	FeMn(HC, MC, LC) SiMn	100,000

Specification

Products   제품명		Mn(%)	C(%)	Si(%)	P(%)	S(%)
FeMn HC	FeMnHC1	78~82	7.5 ↓	1.2 ↓	0.40 ↓	0.02 ↓
	FeMnHC2	73~78	7.3 ↓	1.2 ↓	0.40 ↓	0.02 ↓
FeMn MC	FeMnMC1	80~85	1.5 ↓	1.5 ↓	0.20 ↓	0.02 ↓
	FeMnMC2	75~80	2.0 ↓	1.5 ↓	0.20 ↓	0.02 ↓
FeMn LC	FeMnLC1	80~85	0.8 ↓	0.5 ↓	0.20 ↓	0.02 ↓
	FeMnLC2	80~85	0.5 ↓	1.5 ↓	0.20 ↓	0.02 ↓
	FeMnLC3	75~80	0.5 ↓	0.5 ↓	0.20 ↓	0.02 ↓
SiMn	SiMn1	70 ↑	2.5 ↓	15 ↑	0.30 ↓	0.02 ↓
	SiMn2	65~70	2.0 ↓	16~20	0.3 ↓	0.02 ↓
	SiMn3	60~65	2.0 ↓	16~20	0.3 ↓	0.02 ↓
	SiMn4	60~65	2.5 ↓	14~18	0.3 ↓	0.02 ↓



#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주산지

글·사진 | (주)SIMPAC메탈로이 경영지원팀 선광규

따스한 햇살이 내리 쬐는 나른한 가을의 오후. 아내와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전에 감명 깊게 본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을 다시 보게 되었다. 지금까지 네 번 정도 본 것 같은 이 영화는 볼 때 마다 무언가 조금씩 다른 것을 느끼게 되는 여운이 남는 영화 같다. 답답하거나 짜증이 날 때 한번쯤 보면 좋을 만한 영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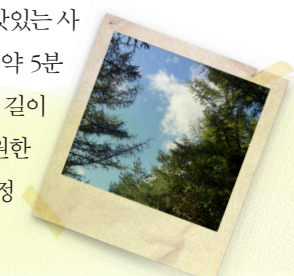
세상의 때가 하나도 묻지 않은 동자승이 옹고 그름을 하나 하나 알아가는 봄, 맑았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와 같이 주체할 수 없는 질풍노도의 시기인 여름, 성공에 대한 갈망 그리고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쓸쓸함이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갈 곳 잃은 죄 많은 청년의 가을, 주인 잃은 암자에 다시 돌아오는 중년의 남자가 세상의 단맛 쓴맛을 모두 보고 난 뒤 깨달음을 얻고자 욕심을 내려놓고 안정을 찾는 겨울, 그리고 이름 모를 여자가 나타나 두고 간 아이가 예전의 그가 그랬듯 하나 하나 옹고 그름을 알아가는 계절 봄... 우리네 인생이 마치 이 영화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으로 끝없이 흘러가는 것은 아닐까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다. 그렇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갑자기 영화 속 촬영지인 주산지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우리는 특별한 계획 없이 이곳으로 훌쩍 떠나게 되었다.

포항에서 청송까지 약 2시간 정도면 도착 할 수 있는 주산지는 아침 일찍 올라가야 물안개 낀 특유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가을의 여유로움(?)을 누리기 위해 오전 10시경 이곳으로 향했다. 그렇지만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요, 주산지도 식후경인 법이다. 우리는 목적지를 살짝 지나쳐 근방 달기약수터에서 시원하게 약숫물 한 잔을 들이킨 후 토종 닭 요리 전문점으로 발길을 먼저 돌렸다.

우리가 찾은 집은 독특하게 닭 한 마리를 잡아 다리와 날개는 백숙으로 푹 삶아주고, 가슴살 등 나머지 살은 잘 저민 후 양념하여 떡갈비 형태로 내어주었다. 한번에 두 가지 요리를 알차게 먹을 수 있어 꽤 좋은 곳이었다. 든든하게 속을 채운 뒤 본래 목적지인 주산지로 향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정표를 따라 오르기 시작했다. 가을이라 청송의 특산물인 사과를 내 놓고 파시는 행상 할머니께서 안 사도 좋으니 먹어보라고 권유하신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른이 주시는데 마다 할 수 없는 법, 우리는 맛있는 사과 한 쪽씩을 물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약 5분 정도 갔을까 콘크리트 포장 길은 사라지고 흙 길이 드러나며 나무들이 머리 위를 뒤덮는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10분 정



도 오르니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주산지. 우리가 갔을 때는 이틀 전 내린 비로 흙탕물이 되어 주산지의 매력인 반영(데칼코마니 마냥 물에 비친 모습)을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물속에서 자라고 있는 300년 이상 수령의 왕버들을 보고 있자니 감탄이 저절로 나왔다. 아내는 “영화 속 절이 없어”라며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 사연은 이렇다.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을 바로 이곳에서 촬영하였으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고자 촬영 후 세트장으로 만들었던 절은 철거했다는 것. 영화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자연은 자연스러울 때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자연 속 왕버들을 품은 주산지에서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맞으며 한가로운 오후를 보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자연.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에 가도 특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청송 주산지에 SIMPAC인들도 나들이 한 번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덧붙여〉 주산지와 왕버들..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이천리 주왕산 절골지구에 위치한 저수지로 조선 숙종 때인 1720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이듬해 완공된 길이 100m, 너비 50m, 수심 8m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이다. 이곳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왕버들은 봄철 농업용수의 이용으로 바닥이 드러나게 되면 그동안 숨을 쉬고 활동하며,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 진뿌리가 발달하여 영양분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물 속에서도 자라고 있다고 한다.





# SIMPAC NEWS

SIMPLE & COMPACT  
SIMPAC STORY

## SIMPAC그룹

### 동국대학교, 최진식 회장에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 수여

- 국내 기계산업 선진화와 세계화, 합금철 분야 위상 드높이며
- 지역사회 발전 및 동국대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받아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이 지난 8월 17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중강당에서 열린 '동국대학교 2012학년도 가을학위 수여식'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날 수여식에는 학사 1,086명, 석사 151명, 박사 68명 등 총 1,305명이 학위를 받았다.

최진식 회장은 국내 기계산업 선진화 및 세계화를 이끌고, 국제장간협회 부회장으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철강, 합금철 분야 위상을 강화한 바 있으며, 필정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인재육성에 힘쓰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점, 그리고 동국대 대학평의원회의 장을 역임, 동국대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 받아 모교로부터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김희옥 총장은 "당나라 임제 의현선사의 말씀에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

作主 入處皆眞)'이 있다"며 "이 말은 어디에 있더라도 스스로 참된 주인이 된다면 그대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진리의 자리"라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모교에서 배운 그 높은 정신의 힘과 베풀어 실천하는 행동으로써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미래사회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주)SIMPAC

### 하반기 공개채용 실시

(주)SIMPAC이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을 실시하였다. 접수기간은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되었고, 신입사원 선발방식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및 인적성검사, 3차 신체검사로 진행이 되었다. 이번 공채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생산팀, 고객지원팀 최종 9명이 SIMPAC의 새 일꾼들로 선발되어 10월 4일 첫 출근을 시작하였다.

### 우수자본재 개발 유공자 포상 수상



(주)SIMPAC 개발팀 김명중차장이 지난 9월 11일 우수자본재 개발유공자 포상식에서 개발유공자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국제지동화정밀기전 개막행사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기업의 유공자 31명과 14개 기업이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상, 장관상을 받았다.

김명중 차장은 2004년에 입사, 기술연구소 및 개발팀에 근무하며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통하여 당사의 기술력 확대는 물론 국내 프레스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지경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 제10회 고객초청 친선 골프대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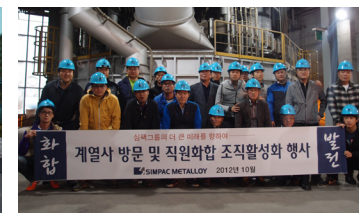
(주)SIMPAC은 지난 10월 20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양주CC에서 SIMPAC계열사 임직원을 비롯 주요고객사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객초청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2003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고객사와의 유대

관계 증진을 위하여 국내영업팀 주관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경기일정을 마친 후 시상을 겸한 저녁만찬 자리에서 최진식 회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품질향상으로 최상의 제품 생산을 통해 모든 고객들에게 최상의 프레스로써 보답하겠다"며 고객사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 (주)SIMPAC메탈로이



### 계열사 방문 및 조직 활성화 행사 실시

지난 10월 "SIMPAC그룹의 더 큰 미래를 위해"라는 테마 아래 계열사 방문 및 조직 활성화 행사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주)SIMPAC메탈로이 직원들은 SIMPAC그룹 계열사 현황 및 발전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룹 내에서 (주)SIMPAC메탈로이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방문 후 저녁식사 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에 대해 더욱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 지면을 빌려 다섯 차례 방문 때 마다 반갑게 맞이주고, 친절히 안내해 준 계열사 관계자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 SIMPAC NEWS

## (주)SIMPAC메탈로이

### QSS활동 명소

#### (주)SIMPAC메탈로이 2공장



포항지역 QSS활동 명소로 (주)SIMPAC메탈로이 2공장이 타사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4일 1, 2차에 걸쳐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단 5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방문자들은 입을 모아 쾌적하게 정리·정돈 된 작업장에 칭찬과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우수한 QSS활동 및 모범적 혁신활동은 제품의 품질 및 회사 인지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동료애의 실천

전기로 근무자로 정년퇴직 후 참고반에서 촉탁으로 근무 중이신 성영옥씨 부인께서 지난 7월 심장수술



을 받았다. 항상 웃는 얼굴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서 그런 큰일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었으나, 갑작스런 병고와 고액의 수술비로 고민하는 그의 소식을 듣고 동료 직원들이 나서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다. 이렇게 모인 약 400만원의 성금은 수술비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동료들의 정성과 따뜻한 동료애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심봉사' 나눔 이야기



1) 9월 셋째 주 토요일 새벽부터 내리는 빗방울에 발걸음은 무겁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포항문화원 풍물 봉사단과 함께 '나전복지마을'을 찾았다. 처음으로 타 봉사단과 진행하는 활동이라 걱정이 앞섰지만, 흥이 절로 나는 풍물가락에 처음의 서먹함은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 되어 웃고 박수 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날의 모임은 누군기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에 남겨졌다.



2) 매달 임직원의 작은 정성을 모아 후원하는 '무지개 지역아동센터'에서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가족 체육대회에 우리 심봉사 회원들을 초청하였다. 그날만큼은 학업 등의 일상에서 벗어난 아이들에게 일일 아빠로서, 형으로서 함께 어울려 게임도 하고, 자장면 봉사대 분들이 만들어 주신 맛있는 자장면도 나눠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 (주)SIMPAC메탈



### 당진소방서 주관, 소방훈련 실시

(주)SIMPAC메탈이 지난 9월 26일 당진소방서 주관 아래 2012년도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본 훈련



은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한 요령을 숙지시키기 위해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훈련중점사항은 화재 발생



시 구내방송 및 행동요령, 인명대피유도 및 응급구조훈련, 각종 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진화훈련 등이다.

# 다른그림찾기

왼쪽 사진과 다른 점이 아래쪽 사진에 네 군데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체크하여 11월 16일까지 각 사 사보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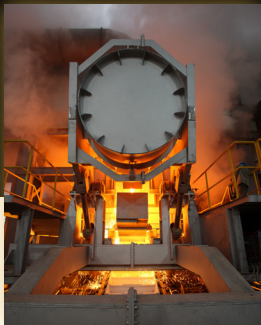
### 다른그림찾기 지난 호 당첨자

(주)SIMPAC	생산팀	박정현
(주)SIMPAC메탈로이	전기로	배강규
	Roll생산팀	김경민
	생산품질팀	조영문
	구매팀	지승연 대리





# 세계 최고 품질, 고부가가치 페로망간(FeMn)을 생산하다! (주)SIMPAC메탈



당진공장 설립으로 생산능력, 제품구성 UP!  
글로벌 종합합금철 전문기업으로 도약합니다.

2008. 09 SIMPAC메탈  
2009. 10 공장 신설 승인  
2011. 12 공장 건축 준공 및 생산개시

중·저탄소 페로망간은 탄소함량이 적어, 가벼우면서 높은 강도를 가진 철강제품 생산에 사용되며 차세대 산업인 초경량 자동차용 강판 및 선박과 같은 고급강 생산에 필수적인 재료입니다.